

발행호: 37호

발행일: 20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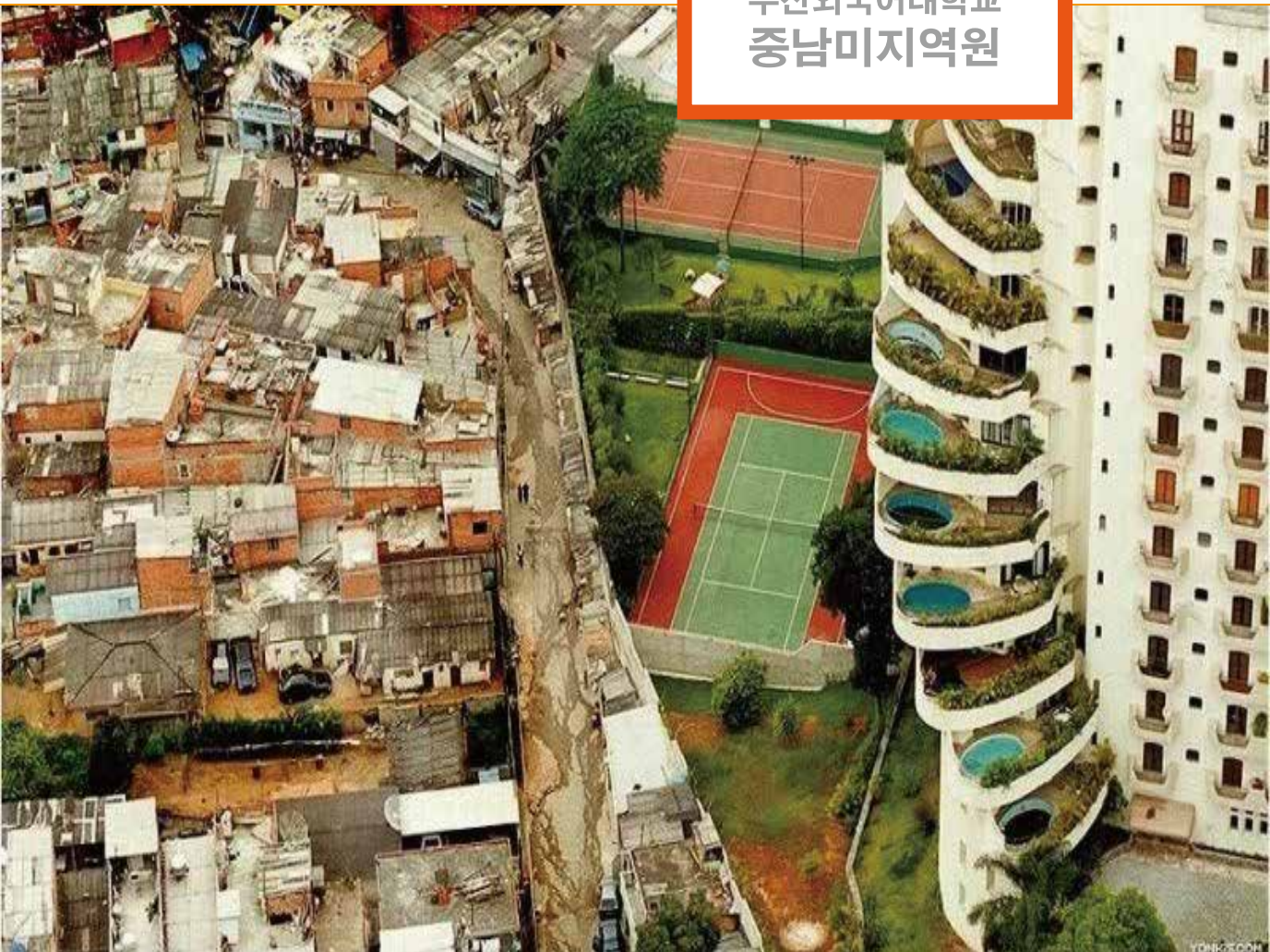
발행인: 임상래

발행위원: 이태혁, 임두빈

발행기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NUESTRA AMERICA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1. 시론

[003] 최근 페루 좌파 정당 동향
오삼교(위덕대학교)

2. 기획특집: 라틴아메리카적 '뉴노멀' 시대: 두 '얼굴'의 공존

[015] 2.1.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외교정책 혼란: 멕시코, 쿠파의 사례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025] 2.2. 베네수엘라의 지속되는 혼돈과 혼란
임태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035] 2-3. EU-메르코스르간 협상에서 드러난 특징과 의미 - 한,메르코스르간 무역 협정 준비 시사점
오성주(포스코경영연구원)

[049] 2-4. FEALAC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한국과 FEALAC
허태완 (외교부 중남미국)

3. 인물로 보는 라틴아메리카

[055] 배신자와 영웅, 성녀와 창녀 사이에: 페론과 에비타
최명호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4. 남미정치경제연구

[067] 미국의 콜롬비아 평화협정 이행 사후처리 지원책 - Paz Colombia
차경미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5. 특별인터뷰

[075] 홍욱헌 위덕대 총장 특별 인터뷰

6. 라틴아메리카 여행기

[093] 에콰도르 아마존 개발 여행: 에콰도르 아마존의 '불편한' 진실과 희망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7. 라틴아메리카 학계에서는

[103]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국가별 연구동향 (2017. 4 - 6)

8. 간추린 소식

[121] 중남미지역원 소식

최근 페루 좌파 정당 동향

오삼교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페루에는 좌파정당이 취약하다. 아니 그 이전에 정당구조 자체가 취약하다. 페루 정치는 여전히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당구조나 시민사회 모두 파편화되어 있고 술한 광산 갈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나 정치체제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후지모리 이후 신자유주의 모델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상층 기술관료 네트워크가 강고하여 후견 시스템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장기적으로 공약을 실천해갈 수 있는 정당구조나 사회적 동원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0년대 초 시행된 지방분권화로 인해 전국적 영향력을 갖춘 정당은 거의 없고 선거 때마다 정당의

지지율이 요동이 심하다. 이미 27년 전 후지모리가 집권하였을 때 기존전통 정당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아웃사이더가 기존 정당체제를 대체하였다. 그러다보니 자본주의 초국가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추진 집단만이 안정적이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으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분배와 복지를 추진하는 안정적 좌파 정당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80년대의 Sendero Luminoso나 Movimiento Revolucionario Tupac Amaru (MRTA)가 초래한 내전과 폭력, 공포와 학살의 추억이 좌파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90년대 이후 후지모리식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채굴 산업 개발 드라이브가 거시경제적 안정과 남미에서도 높은 연평균 6%대의 성장률과 상당한 빈곤 완화 효과를 가져온 것도 좌파적 대안에 대한 열망이 높지 않은 이유로 추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좌파의 문제는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불신이었다. 이 역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16년의 대선과 총선에서 좌파는 뜻하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좌파 선거연합인 FA (Frente Amplio)의 대선 후보인 36세의 젊은 여성인 베로니카 (Verónica Mendoza)는 2016년 4월의 대선 1차 투표에서 19%의 지지를 얻었으며 불과 318,000표 (약 2%)의 차이로 3위에 머물러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했다. 1, 2위 후보는 모두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독재자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딸인 후지모리 게이꼬와 전직 국제경제금융 전문가이자 장관과 수상을 역임한 77살의 현 대통령인 쿠신스키 (Pedro Pablo Kuczynski)였다. 후지모리 게이꼬의 집권시 90년대 후지모리 독재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베로니카는 결선에서 쿠신스키를 지지하였다. 쿠신스키는 불과 4만명 0.24%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FA는 2016년 총선에서 130명 정원의 의회에 모두 20명이 진출하였다. 좌파의 독자적 힘은 약했지만 대선의 향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제는 선택의 대상이 모두 좌파 지향과는 정반대되는 후보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FA는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된 쿠신스키의 PPK (Peruanos Por el Kambio) 보다 두 명이 더 많아 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당이 되었다.

그러나 좌파의 풀뿌리 조직은 너무 허약하였다. 주지사나 군수는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면에 해당하는 1647개 distrito에서는 단 2명이 distrito 시장에 당선되었을 뿐이었다.

FA는 2013년 6월 21일 창립된 좌파연합 조직체로 정당, 사회운동, 활동가, 노조, 진보주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여러 분파가 참여하였다. Ciudadanos por el Cambio, el Movimiento de Afirmación Social (MAS), Tierra y Libertad, Fuerza Social, Patria Roja, el Partido Socialista 등이 FA에 참여하였다. FA는 자원채굴 중심의 경제모델 수정, 아직도 유효한 1993년 제정된 후지모리 헌법 개정, 페루 국민의 최우선 요구 사항인 시민의 안전을 중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FA는 우말라에 실망한 사회주의자, 환경론자, 페미니스트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온건좌파 그룹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논란 속에서 좌초한 구좌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FA는 대선후보 결정에 페루 정당 최초로 시민참여 경선을 치렀다. FA는 문은 열려있고 누구와 와서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2015년 10월 베로니카 멘도자는 Movimiento Sembrar의 대표로 좌파연합인 Frente Amplio 후보로 선출되었다. 페루 북부 까하마르카에서 야나코차 광산 개발 반대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페루의 대표적 환경 및 인권운동가로 떠오른 Marco Arana도 FA 경선에 참여하였다. 이미 2012년 4월 Tierra y Libertad (토지와 자유당)를 창설한 바 있는 전직 카톨릭 신부 마르코 아라나는 베로니카에 이어 2등을 기록하였다. 베로니카의 Movimiento Sembrar는 2015년 4월 창립된 사회정의와 민중의 힘을 기반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좌파조직이다. 원주민 권리보호, 여권운동, 성소수자 보호, 자율주의, 생태정치를 주요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기층 사회운동과 조직, 집단의 좌파 활동가들이 결집한 이 운동 정당은 2015년 4월 베로니카의 고향인 Cusco에서 창설되었다. 창립선언문에서 셈브라르는 운동 집단 간의 연대구축, 담론과 실천의 일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화를 기반으로 정치의 근본적 재편을 목표로 선언하였다.

2015년 10월 초에 실시된 시민투표에서 베로니카는 43.3%를 마르코 아라나는 37.4%를 기록하였다. 제일부통령후보로 Tierra y Libertad의 마르코 아라나를, 제2대통령 후보로 경제학자인 Alan Fairlie를 제2부통령후보로 결정하였다. 2016년 4월 10일 실시된 총선에서 Frente Amplio는 18.7%의 득표를 기록하여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하였다. FA의 의회 출마자들은 13.9%의 득표를 기록하여 총 130석에서 20석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베로니카 멘도자는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출생으로 1980년생이다. 겨우 36세의 나이에 페루 좌파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그녀는 페루 국적 아버지와 프랑스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파리에서 심리학과 인류학을 공부하고 스페인에서 다시 제2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을 전공하였다. 2007년 우말라(Ollanta Humala)가 조직한 페루국민당(Partido Nacionalista Peruano)에 가입하여 국제담당 간사와 청년 홍보위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2011년 Gana Perú를 통해 의회에 진출하였으나 2012년 쿠스코주

에스피나르에서 발생한 광산 시위에서 2명의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피살되자 탈당하고 2013년 중순 창설된 FA에 참여하였다. 연설을 잘하고 순발력이 있으며 대중적 친화력이 있어 주목 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한편 마르코 아라나는 페루 북부 까하마르카 출신으로 신부로 봉직하면서 야나코차 광산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중재하고 억압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까하마르카 유일의 광산 반대운동 지원 NGO인 Grufides를 창설하였다. 그는 미국 Newmont사와 세계은행 그룹의 일원인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이 투자한 야나코차의 부당한 환경 파괴와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항의하는데 일생을 바쳐왔다. 야나코차는 그와 Grufides 활동가들을 상대로 감시와 위협을 지속하였으나 아라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09년 Tierra y Libertad라는 정당을 조직하여 3년간의 지지자 서명 운동을 펼쳐 2012년에는 16만명 이상의 지지자 서명 명단을 확보하여 정식 정당으로 등록하기에 이르렀다. 베로니카나 아라나 두 사람 다 계급 투쟁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성향보다는 환경운동과 인권 옹호 등의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주의자 웹사이트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짜 좌파 (pseudo-left)라고 부르고 있다.

페루 좌파의 역사는 분열과 불신의 역사였다. 페루 좌파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심각한 억압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민족주의적 좌파 성향을 띤 군사정부 시절에도 별다른 탄압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1978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지에서 우파 독재정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페루 좌파는 헌법의회 의석의 1/3을 차지하였다. 1980년 6개 좌파 정당들이 Unidad Democrática Popular라는 좌파 선거연합 선거연합을 결성하였으나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통합에 실패하였다. 결국 대선에 좌파 정당 후보들이 독자 출마하여 총 16.7%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1985년 대선에서는 Izquierda Unida를 조직하여 나름 선전하였으나 2위에 머물렀다(Partido Aprista Peruano 53%, Izquierda Unida 24.7%). 리마 시장을 포함한 여러 주요 주와 지방정부에도 진출하였다.

그러나 좌파의 진정한 도전은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게릴라 집단의 등장이었다. 페루 민주주의가 회복된 1980년 마오이스트 철학교수인 Abimael Guzman이 Ayachcho 북부지역에서 조직한 센데로루미노소 (Sendero Luminoso)는 선거참여를 반대하고 오히려 투표함에 불을 지르면서 페루 정치에 모습을 드러냈다. 센데로루미노소는 정부관리는 물론 노조나 좌파 세력 누구라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공격대상으로 삼았으며 2000년까지 3만명이 넘는 농민, 농촌지역 지도자, 노조활동가, 지역 정치가들을 살해하여 악명이 높았다. Movimiento Revolucionario Tupac Amaru (MRTA) 역시 1985년부터 암살과 공격을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까지 활동을 이어나갔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후지모리가 90년대 초반 센데로루미노소를 진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것은 아니로니였다. 페루 국민의 20%는 아직도 독재자 후지모리를 지지하고 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베네주엘라의 좌파 세력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선거에서 승리로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페루의 좌파는 후지

모리의 극우 독재와 샌데로 루미노소의 극좌 급진주의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2006년 오얀타 우말라가 처음 좌파 포퓰리즘적 성향을 보이면서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우말라는 광산개발의 경제적 환경적 부작용을 우려한 페루 남부 농촌지역의 지지를 받았다. 경선까지 진출했지만 그는 알란 가르시아에 패배하였다. 2011년 우말라는 Gana Perú라는 선거연합을 조직하여 좌파의 지지를 흡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Gana Perú에는 Partido Comunista Peruano, el Partido Socialista del Perú, el Partido Socialista Revolucionario, el Movimiento Político Voz Socialista y el Movimiento Político Lima para Todos 등의 좌파정당들이 참여하였다. 좌파 지지세력은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베네주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프로그램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적 광산개발을 억제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는 중앙은행의 보수적 기술관료들을 수용하였고 취임 몇 달 후 좌파민족주의자들은 지지를 철회하였다.

쿠신스키 정부가 들어선 2016년 7월 이후 FA는 과거 좌파의 불신과 대립을 씻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 단합하여 풀뿌리 조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지난 일년간의 FA의 분열상은 좌파 분열의 DNA가 아직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A에 소속된 20명의 의원 중 10명 정도의 베로니카 계파는 2016년 11월 Nuevo Peru라는 베로니카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정당 등록에 필요한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Partido Socialista, Movimiento Sembrar, Pueblo Unido, Movimiento por la Gran Transformación, Dignidad y Democracia, 그리고 아라나가 건설한 Tierra y Libertad 일부 이탈 세력이 Nuevo Peru에 참여하였다. 베로니카 계파가 Nuevo Peru를 결성하자 아라나 계파와 베로리카 계파 사이에는 상호 불신이 축적되었으며 의회 활동에서 사사 건건 충돌하였다. 베로니카는 신당의 창설이 FA를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라나 쪽에서는 FA의 의회 지도부와 Tierra y Libertad에서 베로니카와 가까운 인사들을 배제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앞으로도 FA를 구성하는 이 두 집단이 단합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회에 진출한 이후 2017년 4월까지 FA 소속의원들이 전체 모임을 가진 것은 단 두 번에 불과하였다. FA의 분열은 페루 정치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 진지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외교정책 혼란 : 멕시코 · 쿠바의 사례

백종국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트럼프가 야기하는 혼란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주제는 “트럼프의 오바마 유산 지우기 (Trump's Roll-back of Obama Legacy)”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들을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폐기하거나 무력화하려하기 때문이다.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미국 나름의 새로운 기초를 닦는 작업이었다. 지구촌의 재앙을 막기 위해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하고, 보건 위생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편의료의 길로 가기 위해 오바마케어를 도입하고, 냉전과 갈등의 상징

으로 남아 있는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1백만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을 질곡으로 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발행이라는 이민개혁을 추진하였고, 이란과 핵협상을 통해 핵개발 중단과 개혁개방정책 실시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후임으로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성과를 일시에 뒤집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며, 이민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이란의 핵협상을 최악의 협상이라 비판하고 이슬람권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대폭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은행 규제조차도 무효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대표적으로 무역정책을 보면 회귀가 아니라 폐기라고 불러야 옳다. 역대 정부들 특히 공화당 정부일수록 자유무역협정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TPP나 NAFTA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자유무역협정조차도 미국의 이익에 맞추어 새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이전에 존재했던 자유무역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보호무역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엎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안보, 무역, 투자, 이민, 환경 등 많은 영역에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한 국가일수록 트럼프 정책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멕시코 장벽 만들기

트럼프가 야기한 혼란은 미국과 약 2천 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는 멕시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는 이 국경에 15m 높이의 장벽을 쌓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멕시코 출신들이 다수인 1천 1백만 명 수준의 불법체류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할 것이고, 멕시코 소재 공장의 제조품에 35%의 국경세를 징수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의 멕시코 정책은 멕시코의 정치경제에 있어서 심각한 재앙이다. 미국이 멕시코 총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은 멕시코의 소득과 고용을 현저하게 하락시킬 것이다. 또한 낮은 임금과 높은 대미접근성 때문에 멕시코에 들어왔던 외국인본들이 미국 혹은 기타 국가로 급속히 유출될 것이다. 이미 포드와 삼성, LG 등이 이러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재정, 무역, 금융 전반에 걸쳐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 수 백 만 멕시코인의 강제추방이 진행될 경우에 해외송금의

상실과 실업 급증, 난민 발생 등으로 인한 혼란은 상상을 불허한다. 이 혼란을 틈타 국내 마약 마피아 조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는 매우 무례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멕시코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는 방대한 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멕시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 대통령에게 멕시코가 이 자금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NAFTA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0%의 장벽건설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세계에서 시리아 다음으로 폭력적인 국가가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장벽건설의 이유라고 강변하고 있다.

새로운 마리엘을 준비하는 쿠바

트럼프가 야기하는 혼란은 59년 만에 관계를 개선한 쿠바와의 사이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정부 하에서 쿠바는 2015년 7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2017년 6월에 이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금융거래와 해외여행금지 제한조치를 발표하였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가 쿠바 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쿠바와의 관계정상화가 쿠바 측에 큰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대한 쿠바의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측근들은 오바마의 쿠바 정책이 쿠바 정부만 이롭게 하고 쿠바의 민주화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나쁜 거래”라고 주장했다. 쿠바에 대한 보복조치의 핵심은 쿠바 정부와 직간접으로 연계되어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적 송금은 허용되지만 정부 관련 기업의 금융거래는 제한된다. 여행의 제한조치도 여행 자금이 쿠바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단체여행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이 제한조치는 “내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물러난 후 자유선거 실시, 정치범 석방,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등이 이뤄지면”

리게 된다. 매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진행하고 있다.

쿠바는 트럼프의 혼란 조성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바의 인권을 언급한 트럼프의 마이애미 연설에 대해 쿠바 정부는 “다양한 인권침해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으로 부터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한 충고를 받고 싶지 않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교단절과 같은 근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 있어 적극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다. 세계경제체제에의 진입을 상징하는 마리엘 경제특구 건설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두고 보자

트럼프가 야기하는 혼란에 대한 멕시코와 쿠바의 대응은 한마디로 “두고 보자”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혼란의 효과가 파멸적일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장벽건설비 제공을 거부하거나, 대통령 회담을 취소

하거나, 혹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소극적 대응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국내정치적 여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효과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할수록 정부 여당의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아직 트럼프 혼란의 부정적 효과가 현 체제의 긍정적 효과를 능가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체 효과의 합산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로 워낙 트럼프의 정책이 국제적 관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로 중국이라는 변수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라틴 아메리카에는 중국의 투자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최후의 수단(the last resort)이 될 수 있다.

미국 사회는 당분간 트럼프의 혼란을 통제하기 어렵다. 워싱턴 중심의 기득권층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진행된 사회적 양극화로 사회적 약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강력한 반트럼프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서 그의 소속

정당이 승리하는 이유이다. 여당인 공화당도 트럼프의 당선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겠지만 미국의 체제 성격상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정치과정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혼란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각 국가들의 창조적 대응이 없는 한 트럼프로 인한 라틴 아메리카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지속되는 혼돈과 혼란

임태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베네수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혼란한 국가 중의 하나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의 풍요로움은 자취를 찾을 수 없고, 다만 심각한 결핍과 사회적 불안만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수도인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거리들은 연일 시위대가 던지는 화염병과 경찰과 군대가 발포하는 최루탄으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들은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혼란은 차베스가 사망하고 마두로가 정권을 이어받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베스가 2012년 말 4선에 성공하였지만 이듬해 3월 취임을 앞두고 암으로 사망하면서 당시 부통령이던

마두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4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마두로는 야권연합의 단일 후보인 카프릴레스를 2%도 안 되는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로 몇 달 전 차베스가 4선에 당선되었을 당시 카프릴레스에 11% 이상의 차이로 승리한 것에 비해 반차베스 세력의 집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포스트 차베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차베스가 지배한 14년 동안 차베스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골이 꾸준히 깊어져 왔고, 반대 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상류층이 카프릴레스의 야권연합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두로의 정치적 약화가 실질적인 위협요인으로 돌변한 것은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부터였다. 차베스에 이어 대통령에 오른 마두로는 전임자가 지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차베스 말기에 악화된 국가 재정으로 인해 처음 부터 경제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래도 고공 행진을 유지하던 국제유가 덕에 지속적인 복지의 확대를 추진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근근이 감당해 나갔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곤두박질치면서 마두로에게 희망을 걸고 있던 많은 차베스주의자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2014년 6월 100달러를 상회하던 국제유가는 반년 만인 12월에 60달러로 수직 하락하였으며 현재는 40달러 대까지 떨어져 있다. 석유가 국가 총수출의 95%를 넘는 베네수엘라로서는 엄청난 악재가 아닐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5.6%에서 2013년 1.3%, 2014년 -3.9, 2015년 -5.7, 그리고 작년 2016년에는 -18.6%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오일머니로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수입하는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일머니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생필 품의 수입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차베스 집권 당시 석유 산업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산업들을 통한

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통하여 대부분의 생필품을 시민들에게 판매하는데, 이들 국영 상점은 물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시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슈퍼마켓 앞에 줄을 길게 서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부족도 심각해져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초기 진료조차 적절히 이뤄지기 힘들어졌고 임산부들은 출산을 앞두고 응급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주변국으로 국경을 넘기조차 하였다. 오일머니가 감소하고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생필품의 양이 줄어들면서 물가는 여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2014년 물가상승률이 140%를 넘은 데 이어, 2015년에 180%, 그리고 2016년에는 700%를 넘어섰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여 물가상승률이 16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생필품이 없어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한편, 연일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말 베네수엘라 정부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기존 지폐 중에서 가장 큰 단위이자 가장 널리 사용되던 100볼리바르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500, 1000, 2000, 5000, 10000, 20000볼리바르짜리 지폐를 새로 유통하기로 하였다. 콜롬비아와의 국경지역에서는 마피아들이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볼리바르화를 싸게 구매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낸 저렴한 베네수엘라 상품을 구입한 뒤 콜롬비아에서 비싸게 파는 방식의 밀수가 횡행하였는데, 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화폐가 바로 100볼리바르짜리 지폐였다. 화폐 개혁은 이러한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예정대로 고액권을 준비하지 못한 탓에 오히려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시민들은 갑작스런 100볼리바르 지폐의 유통 금지 소식에 은행으로 몰려가 새 지폐로의 환전을 원했지만 시중 은행들은 아직 새 지폐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시민들이 돈 뭉치를 들고 줄을 서서 마냥 기다리는 해프닝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신규 화폐의 발행은 국민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는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1월초 1달러에 약 3000볼리바르 하던 환율은 고작 반년이 지난 6월

말에 1달러에 약 8000볼리바르에 달하였다.

이렇게 서민들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마두로의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곤두박질쳤다. 차베스를 옹호하던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는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차베스에 대한 지지와 마두로에 대한 지지는 차이를 보인다. 마두로를 질책하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차베스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국민경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나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최근 극에 달하고 있다. 2012년 말 차베스의 4선 당시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여 시작한 반정부 시위는 2014년 말 경제가 급격히 기울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대거 증가하였다. 2015년 말에 벌어진 총선에서는 차베스주의 정권이 들어선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주의당(PSUV)은 다수당의 위치를 잃었다. 차베스 대통령 시절 사회주의 복지책의 혜택을 입으며 정부를 지지하던 서민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지 않게 된 것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대다수가 마두로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다. 2016년에는 야당연합이 마두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하였다. 국민소환 투표 개시를 위한 1차 국민 청원 서명에 8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서명 인원인 전체 유권자의 1%(약 20만명)를 어렵지 않게 넘었다. 2차 청원 본서명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20%, 즉 약 400만 명 이상의 서명의 받아야 국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친정부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서명의 유효성을 문제 삼으며 2차 서명 수집을 연기하였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의 3분의2가 지나기 전에 국민소환 투표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다. 3분의2가 지난 시점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기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임기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다. 마두로 대통령에게 그 시점은 올해 1월10일이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을 지연시킴으로서 대통령 탄핵을 통한 정권 교체는 무산되었다.

올해 3월 말에는 대법원이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직접 대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베네수엘라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다. 이 발표는 이틀 만에 철회되었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지금까지 계속되며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경찰과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3월 말 이래로 70명 이상의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나 정부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3천여 명이 체포되어 그 중 3분의1 정도가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되었다 풀려난 사람들에 따르면 교도소 안에서는 수감자들이 교도관들에 의해 심한 물리적 학대도 받고 있다.

정치·경제의 실질적인 붕괴는 사회적 불안을 한층 악화시켰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베네수엘라 내부의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극심한 치안불안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이래로 꾸준히 치안불안이 주요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혀온 베네수엘라는 최근 이러한 치안

문제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굶주린 시민들이 마구잡이로 상점이나 식당을 약탈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대낮에도 몸값을 노리는 납치가 빈번해 졌으며, 경찰은 해결 능력이나 그럴 의도를 거의 잃은 듯하다. 주택에 대한 강도의 침입도 위험수준을 이미 넘어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이렇듯 정치·경제적 불안이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해외로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1990년 이래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해외이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중산층 이상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이 당시의 해외 이민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최근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러한 해외로의 이주가 전 국민으로 확산되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이 해외로의 이주에 적극 나선 것이다.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에콰도르, 페루, 그리고 작년부터는 브라질로 이주해가는 베네수엘라인들이 부쩍 늘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불법 이민으로 이주해 간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불법 이민의 급격한 증가로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2015년 8월부터 1년간 양국경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브라질 정부도 마구잡이로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불법이주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증가시켰다.

요컨대, 베네수엘라에서 혼란과 혼돈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반정부 세력과 정부와의 갈등은 점점 더 폭력화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내부의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또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방황하고 있으며, 할 수만 있다면 해외로의 이주를 통해 베네수엘라 사회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최근 6월 말에는 정부청사와 대법원 건물에 반정부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헬기 공습이 있었다. 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유가의 회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또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언제쯤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될지 불투명하다. 다만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U-메르코수르간 협상에서 드러난 특징과 의미 - 한-메르코수르간 무역 협정 준비 시사점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EU와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간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유럽과 미주 양 대륙을 대표하는 다소 이질적인 특성의 두 경제 공동체는 1999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시장 개방 정도에 대한 큰 이견 차로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 이견이 점차 좁혀짐에 따라 1-2년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후, 또 다시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최근 메르코수르 회원국 내에서 우파 정부가 속속 출범함에 따라 양 대륙간 무역 협정이 올해는 마무리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밝았다. 2015년 말 아르헨티나에서는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기업가 출신의 마크리 정부가 출범하였고, 작년 말에는 브라질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우파 성향의 테메르 부통령이 권력을 이어 받아 신(新) 정부를 출범 시키면서, 그 동안 폐쇄적인 경제 블록으로서 운영되어 오던 메르코수르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메르코수르는 개별 회원국들과 역외 국가간 FTA를 허용하지 않아, 자유주의 무역과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과 달리, 수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중심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에서 친(親) 시장주의 정부가 들어 서면서 마치 메르코 수르가 처음 출범하던 1990년대 초의 양상블을 보는 듯한 기대가 있었다.

특히, 테메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4월에는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가 브라질을 방문하여 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나 직후 5월에 불거진 테메르 대통령의 심각한 정치 부패 문제로 브라질이 또 다시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메르코수르간 협상은 왜 반복적으로 지연되나?

이는 산업 구조와 경제적 특성이 다른 두 경제 공동체간 협상인 만큼 각 회원국들이 서로 복잡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무엇이든지 간에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에도 최종 타결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은 협상 의지 자체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이미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EU 보다는 아직 제대로 된 국가와는 단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메르코수르에게 우선은 더 귀책 사유가

있어 보인다.

먼저, 양 경제 공동체의 탄생 배경과 목적을 살펴 보면, 왜 메르코수르의 시장 통합 속도가 느리고, 외국과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지 그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EU는 1950년대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회원국들간 수많은 갈등과 붕괴 위기 속에서도 통합을 목표로 합의점을 모색해 가며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영국의 탈퇴 선언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는 하였지만, EU는 애초 목표인 단일 경제와 단일 통화 체제에서 지금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사회 통합까지도 추진할만큼 견고해졌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이 1,2차 세계 대전이라는 반인륜적 고통을 자초하고, 이후 냉전의 암흑기를 보내면서 얻은 반성과 경험적 산물로 맺은 결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반면, 메르코수르는 역외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내수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관세 동맹으로 시작하였다. 출범의 또 다른 배경으로 1990년대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 자유주의의 물결과 경제 자유화 바람이 큰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남미 국가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르코수르가 선택적 대안이었을 뿐, 경제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애초부터 불확실하였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콜로르 정부와 메넴 정부가 수립된 것도 메르코수르 출범을 가속화하였다. 이 때를 전후하여 과거 대립적이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1994년에는 라틴 국가인 멕시코가 포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출범하면서 중남미 시장을 크게 위협하자, 메르코 수르에 대한 비준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렇다 보니, 메르코수르는 회원국들간에도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역내 주도권을 두고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오히려 더

문제일 정도로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되었다.

물론 메르코수르 이전부터 중남미에서는 다소 느슨한 형태로서 여러 정치·경제 공동체가 존재 하였고, 시장 통합에 대한 논의도 있어 왔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은 과거 미국의 개입과 미국 경제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각 국가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애증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시장 통합은 큰 진전 없이 다소 분열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 까지도 주요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보호주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상호 무역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협상 속도는 더디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요약하면, EU는 권역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통합 목적이 존재하는 반면, 메르코수르는 각 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짙어서 다른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거나 경기 부침 등에 따라서 무역 확대와 개방 정도를 놓고 역내 이견이 많아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향후 메르코수르의 변화 가능성 및 시장 통합 전망

이러한 역사적 요인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과거보다 시장 개방의 확대와 경제 통합을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동안 중남미 경제 호황을 이끌던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서 중남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소비재 생산이 부족하여 외환 보유고가 아쉬운 상황에서도 수입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생필품 부족 현상은 정부와 국민 모두 너무나 고통스러운 요인이어서, 과거 만큼 수출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시장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물가 수준을 억제하는데 한계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때마침 보호주의 물결이 짙은 핑크 타이드 (Pink Tide)가 점차 소멸되고, 주요국들에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우파 정권들이 속속 출범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간 교역도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작년 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 정상간 논의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양국간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원국들의 개별 FTA 체결을 금지하였던 규정도 브라질의 주도로 완화되면서 그 동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눌러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국가들과 자유롭게 FTA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의 경우, 그 동안 메르코수르의 폐쇄적인 특성을 역으로 활용, 역내 무관세 혜택을 이용하여 양 대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의 전진 기지 역할을 추구해 왔는데, 개별 FTA가 허용될 경우, 이러한 전략적 효과가 더 크게 발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역내 다른 경제 공동체인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과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두 공동체는 상이한 경제 구조와 정치 성향으로 양분되어 서로 배타적인 경쟁을 벌여 왔는데,

저유가 지속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중남미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는 상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서 메르코수르에서는 브라질, 태평양동맹에서는 칠레나 콜롬비아의 행보가 주목된다.



반면, 메르코수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둘러싼 역내 갈등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메르코수르는 정치 공동체 성격도 강해 과거 좌파 정부들이 주도하던 시절에는 베네수엘라의 가입을 위해 이를 반대하던 파라과이를 일시적으로 권한 정지

까지 시켰는데, 이제는 우파 정권들이 주도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의 가입 조건 미준수와 민주주의 등을 명분으로 자격 정지시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우루과이 역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는 살짝 엇박자를 내며 베네수엘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서, 만약, 브라질이 또 한번 탄핵 사태로 좌파 정권이 다시 수립될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EU-메르코수르간 무역 협정 전망과 한국의 FTA 대응 시사점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그 동안 농·축산 부문 개방을 두고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도 EU의회 의원 20여 명은 브라질의 정치 위기를 이유로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권이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부분은 다른 이해 관계로 협상을 논의해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남미 기업들의 강한 반대 목소리도 걸림돌이다. 현재 메르코수르는 EU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이끌어왔으나, 브라질 재계 등에서는 폐지 기한을 15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크다. 그리고 이들의 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끌기 목적이 강해서 향후 브라질 정권 교체 등으로 협상 주도자가 바뀔 경우, 기존 협상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올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던 EU-메르코수르간 무역 협정은 예정보다 늦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면 한국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시장은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라질의 경우, EU-메르코수르간 무역 협정

체결을 가장 우선 시 하고 있어, 일단은 인내심을 갖고 EU와의 협상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협상 대상국의 동향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메르코수르는 EU와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과 바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한국 역시 EU와의 협상 과정을 잘 지켜보고 분석하여 한국과 메르코수르측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한 예로서, 한국은 메르코수르와의 협상에서 기존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대기업 위주로 현지 시장 개척이나 무역 수지에 유리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밀어부칠 경우,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한 남미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보호주의의 필요성만 더 부각시킬 수 있어서 자칫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시장 매력도는 가장 높으나, 현지 법률 등이 복잡하여 어려운 협상 파트너인 브라질과의 개별 협상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과 품목과

조건에 대해 어느 정도 협상의 성과를 거둘 경우, 나머지 회원국들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 중남미 외교 라인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남미 국가들과는, 콜롬비아를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깊은 연결 고리가 없는 편인데, 특히 작년과 올해 공교롭게도 한국과 브라질 정부 모두 새롭게 출범하여 양국간 이해나 우호 관계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 놀라운 시민 의식과 사회 수준으로 정치 상황도 빠르게 안정된 만큼 이제는 중남미에도 눈을 돌려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로 보인다.

FEALAC의 더 큰 도약을 위해 : 한국과 FEALAC

허태완 (외교부 중남미국)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지역간 협의체를 물어보면, 머릿속에 어떤 협의체가 먼저 떠오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을 떠올릴 것이다.

이에 반해, APEC, ASEM과 함께 동아시아가 지역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세계 3대 지역간 협의체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은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친숙한 이름은 아니다. 각각 10년과 5년 먼저 창설된 APEC 및 ASEM에 비해 FEALAC이 국민들에게 생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중남미라는 지역이 우리에게 주는 낯설음과 지리적 원격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FEALAC은 세계 경제를 함께 주도해 나갈 잠재력이 풍부한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9년 칠레 및 싱가포르의 제안에 의해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18년간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로서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APEC 및 ASEM과 달리, FEALAC은 정상급 회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공동기금의 부재로 협력사업을 제안하는 국가가 사업 소요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또한,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의 추구하고 있지만, 유망한 협력분야와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는 항상 존재한다.

그동안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FEALAC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2011년 FEALAC 사이버사무국을 열어, FEALAC 회원국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의 체계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10년 FEALAC 중장기 발전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 비전그룹 창설을 제안하였다. 세계의 석학들은 2013년 이 그룹을 통해 수십 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2007-2015년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지속 수임하며 경제·사회/정치·문화·교육·스포츠/과학·기술/무역·투자·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기여해 왔다.

한편, 한국은 2004년에 이어 2015년 8월부터 두 번째로 FEALAC 지역조정국을 수임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제7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민간 경제인들과 함께하는 제3차 FEALAC 비즈니스 포럼을 4차 산업혁명 시대 FEALAC 협력방안이라는 주제하에 개최하였다.

금년 8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FEALAC 외교장관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FEALAC 목표 설정, 주요 문서 채택 및 승인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다. 금년 회의에서는 FEALAC 발전 방안 및 글로벌 도전과제, 지역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36개국 장·차관 및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단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는 FEALAC의 창설 18주년을 맞아 “하나의 비전, 새로운 행동(One Vision, New Action)”이라는 슬로건하에 지금까지 쌓아온 협력 비전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금년 회의에서는 우리측 제안으로 추진 중인 FEALAC 기금 창설 및 실행동계획(New Action Plan) 채택 등 다양한 성과물이 나올 전망이다.

먼저, 실행동계획은 FEALAC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분야, 즉 △FEALAC 제도적 기반 강화 △국별 및 FEALAC 차원의 협력사업 증진 △지역·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제고에 걸쳐 11개 이니셔티브를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 계획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전 회원국을 위한 범지역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 FEALAC 펀드 설립을 추진중이다. 우리는 동 펀드 설립을 위해 그간 여러 국제기구와 협의해 왔으며, 결국 UN내 양 지역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UN ECLAC과 UN ESCAP의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ECLAC/ESCAP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UN 다자신탁기금 형태이자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FEALAC 기금을 통해 범지역간 실질 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은 FEALAC이 새로운 동력을 갖고 더욱 발전된 다음 단계로 재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도약을 위해서는 FEALAC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APEC 및 ASEM과 차별화되는 FEALAC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FEALAC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지역간 협의체인 만큼, 작은 유엔이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신흥

경제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국가 주도하에 운영되거나 의제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지역간 소통의 장이다. 이러한 FEALAC의 다양성과 유연한 구조는 창의적인 지역간 협력 방안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다지 큰 가격이 나가지 않지만, 세공에 따라 작게는 몇 배, 크게는 몇 천 배의 가격을 갖게 된다. FEALAC이라는 협의체도 얼마나 잘 세공해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선도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FEALAC이라는 협의체의 존재감과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국민들에게 더욱 익숙한 협의체가 되길 기대한다. 올해 성공적인 FEALAC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 학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배신자와 영웅, 성녀와 창녀 사이에: 페론과 에비타

최명호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아무리 입체적인 인간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범인(凡人)들은 잊히고 특별한 이들도 대표적 이미지만 남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후안 페론과 그의 아내 에비타의 경우는 다르다. 여전히 논쟁적이며 여전히 극단적이다. 이것은 어쩌면 후안 페론과 에비타에 대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떤 것이 남아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를 일이다.

예전에 “플랜더스의 개”와 더불어 사랑받았던 만화영화 “엄마 찾아 삼만 리”가 있다. 원작인 이탈리아 작가의 작품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이고 엄마를 찾아가는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바이아 블랑까 Bahía Blanca이다.

노골적으로 내용을 표현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탈 리 아 의 아 주 머 니 가 아 르 헨 티 나 에서 식모살이하는데 아이들이 찾아오는 내용이다. 전후 유럽과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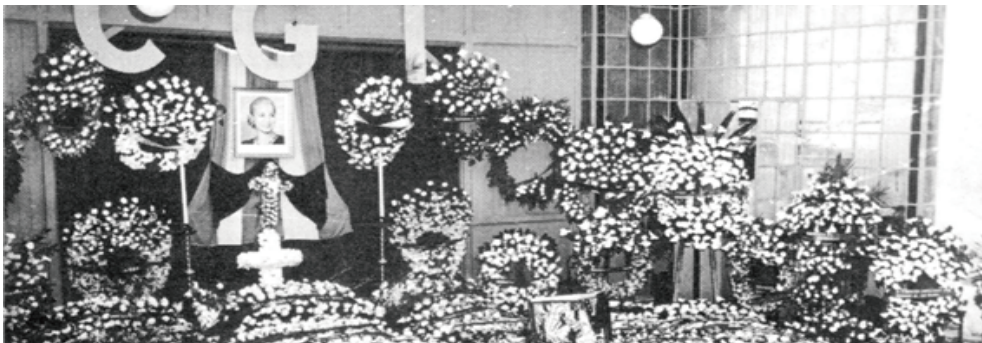


이 아르헨티나의 풍요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후안 페론과 에비타이다.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의 뿌리 깊은 병폐 중 하나인 포퓰리즘의 원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페론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군부정권에 참여한 뒤 육군 장관 겸 노동-복지부 장관자리에 앉게 된다. 파시즘의 시대였고 공산주의가 새롭게 대두되던 시기였다. 페론은 1945년 부통령과 국방부, 노동-복지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군부정권의 2인자로 자리를 굳히지만 군부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내부적 문제로 마르틴가르시아 섬에 구금된다. 하지만 수만의 군중이 페론석방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의 중심에 에비타가 있었다. 1946년 2월 선거에서 54%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1951년에는 67%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그가 이끌던 노동당도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여 페론은 당시 아르헨티나의 3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군부와 노동조합 그리고 교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후 공공사업, 교통 등 인프라 개발, 교육 개혁,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조직화된 노동계층과 상당히 밀접했으며 1947년 모든 외채를 청산하고 경제적 독립을 선포하기도 했다. 1948년에 정의주의(Justicialismo) 주장하면서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압박했다.

페론의 정의주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민주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정의주의와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간접선거와 선거인단의 폐지와 직선제를 통한 무제한의 재선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무제한 재선이라 해도 선거를 폐지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1948년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진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그의 아내, 애칭인 에비타로 더 유명한 에바 페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동지이면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담당하던 에비타가 1952년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페론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채널을 잃어버렸고 1955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게 된다. 이후 스페인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1973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듬해 1974년 사망했다.

페론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갈리는데 친미/우파적 관점으로 페론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원형이며 그 중심에 계획 없는 선심성 정책과 위기를 호도하는 거짓을 페론주의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추모의 열기가 느껴지는 에비타의 무덤사진

또한 민중의 지지와 3권을 독점한 포퓰리스트적 독재의 대표로 꼽기도 한다. 그 반대로 페론의 집권 시기에 부의 분배가 상대적으로 잘 되었고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무엇보다 지방토호와 지주 세력에게 착취당하던 민중들에게 정치적/경제적 생존권을 보장해준 첫 번째 인물로 간주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에비타 또한 허영과 낭비, 사치에 가득한 자신의 본모습을 감추고 고상한척 연기를 한 아르헨티나를 망친 창녀의 이미지와 진정으로 민중을 아낀, 아르헨티나 민중의 대모(代母), 성녀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인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미지는 모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담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어쩌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미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일제치하에 무성영화를 보기위해선 대사를 대신 말해주는 변사(辯士)가 있어야 했다. 변사에 역량에 따라 별 것 아닌 영화가 명작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명작 반열에 오른 작품이 시시해지기도 했다. 에바 페론은 라디오 성우 출신이다. 당시 기준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드라마틱했을 것이며 다분히 감정적이고 어떤 부분에선 선동적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과장된 가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녀가 했던 많은 자선 활동에 대해선 스스로의 증언을 통하지 않고선 그것의 진정성을 가늠할 길은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페론이 에비타를 부통령 후보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정치적 동지였으며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에비타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다는 것이다.

페론 이전에 아르헨티나는 다른 라틴아메리카와 비슷하게 과두정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귀족정치 시기였고 대통령 선거 또한 선거인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가 독재에 가깝게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이룩한 것은 민주화 혹은 민주적 제도 개혁이다.



수만의 사람이 모여 횃불로 며칠을 밝혔다고 한다.
에비타에 대한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봉건적 질서가 절대왕정을 통해 무너지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원형이라는 것 또한 포퓰리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나쁜 의도로 포퓰리즘을 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석하는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아르헨티나 내부 문제로만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페론이 처음 집권했을 때 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중요한 외부변수는 바로 미국이었다. 1898년 미서전쟁 이후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맹주였고 세계 2차 대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연합군의 중요한 축이었다. 당시 미국의 걱정과 염려의 한 부분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어느 한 국가라도 추축국 편에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만일 멕시코, 아르헨티나 혹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의 대국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1945년 후반부터 중공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석탄과 석유의 공급을 중단했고 페론이 이탈리아에 있었던 탓이었는지 페론이 나치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트루먼 정부가 출범하자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했다.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아르헨티나의 국민총생산은 약 27% 상승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엄마 찾아 삼만 리”의 배경이 된 풍요로운 아르헨티나의 배경이 바로 이때이다. 전후 미국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양모, 육류 가공 통조림과 목재를

수입했으나 아르헨티나가 육류와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게 봉쇄했다. 전후, 1946년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의 3/4 이상이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화폐여서 호환성이 없었고 연합군이건 추축국이건 전후 폐허가 된 유럽 국가들의 화폐의 가치는 급락했다. 결국 1947년 모든 외채를 청산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면서 외환, 특히 달러 보유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미국은 유럽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의 곡물 반출을 결정하여 아르헨티나의 수출 길을 막았고 1948년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원조 프로젝트인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달러로 아르헨티나와의 교역을 불허했다. 그 결과 1949년 아르헨티나는 달러가 고갈되어 부채국으로 다시 전락하게 된다. 페론의 불행은 바로 대외적 요인, 즉 미국과의 관계, 더 정확히는 무역 봉쇄, 그리고 기축통화로 사용되던 달러의 확보, 미국과의 교역에서 계속적인 적자 등이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압적 정책들로 인해 반감을 사기 시작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노조의 파업이 있었고 이 파업에

교회가 개입하게 되었다. 자신의 지지 세력이던 노조와 교회와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했고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힘쓰고 유전지대 개발권도 양도하면서 민족주의자들에게도 반감을 사게 되었다. 지지기반을 잃어버린 페론에게 남은 것은 실각 밖에 없었다. 결국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노조-교회-군부 모두에게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스페인으로 망명했던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의미로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전시에 미국 또한 사활을 건 외교 활동을 볼 수 있고 어차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페론의 통치기간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격변기, 특히 1944년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제는 페론과 에비타 모두 ‘영웅과 배신자’, ‘성녀와 창녀’ 사이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둘 모두 과장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식이고 거짓이고 위선이였다고 해도 민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친 사람은 그 당시에 라틴아메리카에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펼쳐진 세계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허물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 판단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한계로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콜롬비아 평화협정 이행 사후처리 지원책 - Paz Colombia

차경미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2011년 집권한 산토스(Juan Manuel Santos: 2010~현재) 대통령은 장기 내전종식을 목표로 2012년 10월 FARC와의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며 게릴라와 평화협상을 진행하였다. 아바나와 오슬로에서 개최된 평화협상은 난항을 거듭한 끝에 2016년 6월23일 쌍방이 포괄적인 정전 합의에 서명함으로써 타결되었다. 협상은 농촌개발 및 토지개혁, FARC의 정치참여 보장, 분쟁종식, 마약생산 및 밀매퇴치, 내전 희생자보상을 골자로 진행되어 정부와 게릴라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산토스 정부는 평화협정 이행 사후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내 갈등에 직면해 있다.

2016년 2월 4일 ‘Plan Colombia’ 운영 15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을 방문한 산토스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만나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평화협정 사후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Paz Colombia’라고 불리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미 의회는 국내 마약소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2017년 예산에 콜롬비아 평화원조를 위한 4억5천만 달러 지원책을 포함하였다.

정권교체로 인한 미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와 함께 ‘Paz Colombia’ 운영이 불투명해지자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미국을 순방하여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만나 실질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Plan Colombia’ 작동에도 불구하고 불법작물재배 및 거래량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콜롬비아 정부의 반 마약정책의 비효율성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산토스 대통령은 평화협정 사후처리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콜롬비아

평화지원책은 결국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Paz Colombia' 이행을 촉구하였다.

1990년대 중반 콜롬비아의 주요 마약카르텔이 쇠퇴하자 좌익 게릴라 FARC가 마약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13억 달러 군사 원조안인 'Plan Colombia'를 수립하여 패권적 개입주의를 시작하였다. 'Plan Colombia'는 콜롬비아의 주요 마약생산지 투마요(Putumayo)와 카케타(Caqueta)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전략으로서 탈냉전이후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등장한 마약생산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96-2001년 'Plan Colombia' 운영을 통해 미국의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원조는 15배 증액되었다. 특히 2000-2001년 한 해 동안 군사원조비는 총 예산의 75%가 책정되었다.

콜롬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게릴라와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2002년 등장한 우리베(Alvaro Uribe: 2002-2010))대통령은 국가안보정책을 우선순위로 채택하며 힘에 의한 게릴라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

‘Plan Colombia’는 우리베 정권 등장을 계기로 연장되어 2007년 초까지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불법무장조직 소탕을 목표로 정부에 의해 양산된 민병대는 점령지 확장과정에서 농민 토지 강탈 및 마약거래에 개입하였다. 2006년 정부는 민병대 해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후 신흥불법무장조직이 등장하여 활동하였다. 콜롬비아 정부는 ‘Plan Colombia’ 연장선에서 2007-2010년 ‘Plan Patriota’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적으로 강도 높은 국가안보정책을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재배와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미국 양당은 국내 마약소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콜롬비아 평화협정 사후처리에 대한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2000년 들어 콜롬비아의 불법작물 경작과 생산은 역대 최고에 도달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협상 사후처리비용 지원책을 마련하여 의회승인을 요청하였다. 미 의회는 ‘Plan Colombia’를 대체하게 될 ‘Paz Colombia’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5천만 달러를 승인했다. 한편,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John Kerry)는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슬로베니아, 일본, 스위스, 한국 그리고 우루과이는 이에 동참하여 산토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였다. 산토스 대통령은 5년 내에 모든 지뢰장치를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주기구(OEA) 사무총장 알마그로(Luis Almagro)는 콜롬비아의 평화 정착에 대한 지원은 미주지역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언급하며 지역연대기구로서 평화협정 이행에 대한 감시자 역할 강조하였다.

그러나 'Paz Colombia'는 국내 정치적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게릴라 FARC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산토스 정권의 평화협상을 비난하며 반 평화협정운동을 전개하였다. 파스트라나(Andrés Pastrana: 1998-2002) 전 대통령도 평화협상으로 인한 마약범죄 증가 및 사회적 분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 (HRW) 미주지역 위원장 비앙코 (José Vivanco)는 희생자 보상과 내전 주범에 대한 법적사면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양보로 얻어낸 FARC와의 평화협정은 이후 다른 불법무장조직 ELN와의 협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ELN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산업시설 파괴, 군인 및 경찰 납치, 암살 등 ELN로 인한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l Espectador 2017. 5월 18일 트럼프와 산토스 정상회담(워싱턴)

한편, 콜롬비아 정치학자 타우스(Aaron Tauss)는 실향민을 배출하고 양민학살을 주도해온 'Plan Colombia'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적 지원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EU 및 미국의 콜롬비아 평화협정 사후처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결국 콜롬비아 정부가 해외거대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원 형식을 빌려 유입된 다국적 자본은 그동안 국내 무력분쟁으로 인해 진입이 어려웠던 지역의 자원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산토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Paz Colombia'는 영속적인 개입주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며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홍옥헌 위덕대 총장

무더운 7월의 어느 여름날 위덕대를 방문했다. 본 대학을 품고 있는 兄弟山의 다정다감한 모습만큼, 홍옥헌 총장님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셨다. 그렇다. '라틴 아메리카 학자와의 만남', 그 주인공이 위덕대 홍 총장님이다. 홍 총장님은 내년에 정년을 앞둔 학자로 위덕대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치학이라는 사회과학 학문에 정진해 왔고 그 속에서 지역학 연구를 통한 사례 연구를 강조해 왔다. 이는 어떤 주장이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자로 연구에 '온전히' 매진할 수 없게 못내 아쉬워하며, 라틴아메리카 연구가 단순히 반면교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면교사가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인터뷰는 11일 오후 총장실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Q. 총장님의 ‘역동적인’ 삶을 한 단어로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선정하신 이유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 삶은 역동적이었다기 보다는 평탄하였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역동적이란 말을 직업이나 생활 과정의 변화무쌍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면, 결코 역동적이진 않았습니다. 위대한 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요.

교육과 연구자의 길을 택하게 한 계기는 물론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저는 언론인을 꿈꾸었습니다. 대학 2학년 초에 대학신문 기자 모집이 있어 지원했는데, 상식문제가 여러 문항 있었는데 20%도 맞추기 어려웠으며, 자신이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으며, 기자되는 것을 포기하였고요. 대신 막연하지만, 공부를 좀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자가 되려면, 적어도 석학들과 같이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 있는 학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당시 외국 유명 학자들이 종종 초청 강연을 하였는데, 질문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도 듣기만 해야 하는 것이 좀 창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Q. 총장님은 학부에서부터 정치학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1970년대 많은 학생들의 주요 관심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을 탈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군사독재에서 민주화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막연하지만 혁명을 통한 사회민주주의를 많이들 생각했던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공부하면서, 혁명이나 급진적 변화란 어느 사회에서든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란 점을 느꼈습니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혁명을 외쳤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상을 실현시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가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소위 종속이론, 군부독재 등의 산 실험장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미국 유학시절이나 라틴아메리카 연구하시면서
혹 에피소드 등이 있다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대학원생들에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가 선호 대상이었지만, 한국 학생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의외로 받아드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하느냐는 질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조사 갔을 때, 여러 분들이 의아해 하면서 왜 관심을 갖는지 많이 물어 보았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사례연구나 한국과 비교연구하면서 편견을 깨달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3세계 지도력 연구”란 과목이 있었는데, 라틴아메리카 주요 지도자와 다른 저발전국 지도자의 지도력을 비교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업적을 발표하면서 권위주의적 면이나 정치사회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박대통령의 업적을 아르헨티나의 페론, 칠레의 아옌데, 필리핀의 마르코스, 가나의 엔크루마 등 어느 대통령과 정치경제 및 사회 지표를 비교해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음을 알았습니다. 당시 대학 다니면서 가졌던 박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 사회나 인간이 이루어 낼 수 있는 업적과 발전의 한계가 있으며, 이상을 실현하는데는 이상만 좇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소한 개인사라면, 저와 함께 제 처가 코네티컷 주립대에 박사과정 입학에 동시에 하게 되면서 생후 4개월 되는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가지 못했어요. 아이는 장모님이 한국에서 키워주셨구요. 저희들이 박사과정 내 코스웍 (정규수업)을 마무리 하며 한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답니다. 아이와 떨어져있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하루 속히 아이를 만날 것을 고대하며 열심히 학위과정을 감내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총장님의 박사학위 논문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진행된 연구의 영역 및 주제가 민주주의와 남미, 특히 베네수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총장님의 박사학위논문의 제목 [베네수엘라, 예외(적인)주의 민주주의]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총장님은 라틴아메리카 그 가운데서도 베네수엘라에 “애정” 이 있으신 거 같아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까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학하러 갈 때 처음에는 남미가, 정치적 독립을 우리나라 보다 100년 이상 앞서 획득하였는데, 왜 종속경제 체제로 나아가는지 또는 군대 규모가 미약한 데, 왜 군부정치가 빈번한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민주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은 80년대에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을 하였고 후반에는 민주화까지 이루었습니다. 민주화의 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엔 더 필요할 것 같아 민주주의 연구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남미에서 민주정부의 전통은 우루과이나 칠레가 오래되었습니다만, 70년대 석유위기 이후 모두 군사독재체제로 전락하였습니다. 60년대 이후 줄곧 민주정부를 유지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군사정부를 경험하였지만, 민주화이후 콜롬비아와는 달리 일찍 내전을 종식하고 민주정부를 유지하였습니다. 민주화의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 베네수엘라를 선택 하였습니다.

Q. 다시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미의 정치경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장님도 주지하시다 시피 21세기 남미의 좌파물결인 ‘핑크타이드’의 도래로 인해 남미의 정치지형도가 좌경화 되고 그런 흐름이 10년 정도였구요. 지금은 핑크타이드의 위기 혹은 좌파정권의 등장의 ‘밑물’이 이제는 ‘썰물’화 되었다고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 분석하고 있구요.

더욱이, 핑크타이드의 그 첫 번째 물결 (ola)이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었던 핑크타이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학시절에는 페론 정부나 아옌데 정부가 무너진 것에 대해 애석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남미 정치경제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남미경제의 정체와 불안정은 미국의 반공정책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에 있어 과도한 국가 간섭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였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나 70년대에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

등이 한 때 고도경제성장을 경험하였습시다만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신해 공기업 중심의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공기업은 초기에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지만, 국제시장 침체가 되자 적응을 발 빠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1980년대 초 남미의 외환위기는 공기업의 부채 누적으로 일어난 위기가 발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19세기말에서 1차 세계대전까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석유위기나 1980년대초 외환위기는 정부가 공기업을 과도하게 운영하였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1980년대 경제위기 때,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안정과 발전에 적절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율리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는 것도 국내 생산의 경쟁력을 갖게 한 계기라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우 공기업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견지하였습니다. 특히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쿠바를 제외하곤 국유부문이 가장 큰 경제로 변모하였습니다. 1980년대초 경제위기를 맞아 국가자본주의에서 탈피해야 지속적 경제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 반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20여년 동안 시장경제와 국가간섭간의 “stop - go”의 지그제그 행보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과는 국내경제의 경쟁력 상실, 세계최고 수준의 정부부패 수준, 빈곤층 확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이었습니다.

기성부패정치 청산, 빈곤 퇴치 등을 주장한 차베스 대통령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차베스 정부의 복지확대는, 이후 자본 국유화는 과거 역사적 경험과 이웃 사회주의 경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일시적 경제정책으로만 유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워싱턴 합의”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며,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를 남미 경제

발전의 대안으로 옹호하는 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베스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정부의 과도한 복지와 자본 국유화 정책은 더욱 더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 비판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구차 몇 번 카라카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길거리가 더 퇴색하고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역외상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시대 출범이후 전 세계가 다시금 국제정치경제 맥락 가운데 혼돈 혹은 ‘퇴행’이 되고 있는 양상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트럼프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 등을 보면 지난 오바마 정부의 ‘유산’을 지우고자 하는 정책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은 트럼프 시대 대 라틴아메리카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 까요?

크게 보아, 미국의 전후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은 반공, 소련 공산주의 붕괴 후에는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이 기조라 생각합니다. 오바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쿠바를 포용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고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특별히 라틴아메리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미국의 투자나 반공정책에 적대적인 라틴아메리카 정부는 은밀히 붕괴시키기도 했으나, 더 이상 미국정부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내정간섭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리적으로 라틴아메리카가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교역이나 교류는 다른 지역과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Q. 총장님의 통찰력을 키우는 데 도움 혹은 영감을 일으킨 선진 학자 혹은 그분의 저서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찰력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만, 감동을 받은 책은 여럿 있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해서 먼저,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1968)입니다. 후진국들의 발전노력과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서로 길이 다른지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치경제 발전에 관심을 갖게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James Wilkie, The Mexican Revolution: Federal Expenditure and Social Change since 1910 (1967)은 혁명 같은 추상적인 정책을 표방하더라도 실증적 통계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라 믿습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통찰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려면, 주장과 실제 간의 어떠한 괴리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을 통계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ary S. Becker and Guity Nashat Becker, The economics of life: from baseball to affirmative action to immigration, how real-world issues affect our everyday life (1997)는 정치사회적 주요 문제를 푸는데 다른 학문적 성과를 융합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Becker는 얼핏 보면 경제적인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를 경제적 이론으로 설명을 시도하여 새로운 시각을 넓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를 하고자 하는 다음세대 (후속세대)에게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떤 학문 연구에 있어서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례, 비교, 사실 자료 등은 어떤 주장이든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확한 측정과 평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경제 문화 등의 역사적 전통이 비슷하면서도 여러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비교연구의 자연적 실험실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의 거시적 연구는 나라가 기본 단위이니 다른 나라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리적으로 먼 것이 연구를 어렵게 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의 세계화로 이 지역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적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카라카스 한 백화점 진열상품을 보면 한국제품의 세계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단순 정보가 아니라 심층적인 역사와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는 갈수록 더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연구 여건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지역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경우, 라틴아메리카 연구는 한국 정치의 반면교사로 여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다 일찍 식민지, 군사독재나 빈곤을 경험하여 이들 연구를 통해 선진 모델로 볼 수 있길 바라고 있었습시다만, 관심사는 실패 경험들에서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항상 반면교사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가 모자라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면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내 아시아-라틴아메리카간의 상생을 모색할 수 있지 싶습니다.



에콰도르 아마존 개발 여행: 에콰도르 아마존의 ‘불편한’ 진실과 희망

이태혁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에콰도르는 4가지 ‘얼굴’을 가진 국가이다.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의 에콰도르 (Ecuador)는 모두 4개로 구분되는 지형으로 형성된 남미의 한 국가로 다윈의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으로 유명한 갈라파고스 (Galapagos) 군도, 태평양 연안의 해안(Costa),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인 산지 (Sierra),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동편인 아마존 (Amazonia) 열대 우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지리적 환경으로 형성된 각 지역마다 저마다의 ‘맛’ 과 삶의 양식이 다르다. 필자는 갈라파고스 군도를 제외하고 에콰도르의 3개 지역을 방문한 바 있는데 그 지역을 모두 본 글에 담기 보다는 아마존 지역, 특히 아마존 지역의 7개 주 가운데 오레야나 (Orellana) 주와 결부된

과거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간략히 담고자 한다.

필자는 브라질, 페루 그리고 볼리비아국가의 아마존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연구목적으로 방문하며 아마존지역 그리고 현지 원주민들을 개발이라는 담론으로 반추하며 학문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했었다. 그리고 인접국이지만 방문해 보지 못한 에콰도르의 아마존지역은 사료를 통해 먼저 그 지역의 역동성을 확인 한 바 있다. 이베로아메리카 학술지에 “에콰도르의 이중성”이라는 논문의 제목하에 에콰도르 아마존지역 개발의 정치경제적 역설을 Yasuni ITT 사례를 통해 연구 한 바 있다. 그리고 궁금했다. 실질적으로 에콰도르 아마존은 어떠한 모습일까? 다시 말해, 코레아 정부내 시행코자 했던 야수니 공원내 에콰도르 최고 원유매장지인 이스팽고 (Ishpingo)-탐보코차 (Tambococha)-띠뿌띠니 (Tiputini) 지역에 대한 석유개발 포기를 선언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 (환경분담금)을 지난 2007년부터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내 2013년 ‘환경적 쿠데타’로 치부될 수 있는 Yasuni ITT initiative 철회를 했으며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의 ‘몫’은 중국발 자본의 (in)visible hand로 넘어갔다. 때문에 필자는 확인하고 싶었다. 그 실상을! 그리고 이내 교내 ACE사업의 해외문화 체험탐방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함께 사료로만 접했던 그래서 현재적 모습이 궁금했던 에콰도르 아마존 땅으로 떠나게 되었다.

아마존 ‘시작점’에 가다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첫날 하루 밤을 청한다. 키토가 해발 2850m로 고원지대여서 그런지 숨 쉬는 것이 불편했다. 그리고 명일 저녁 야간버스에 몸을 싣고 야수니 국립공원이 있는 오레야나 주의 꼬까 (Coca)시로 출발했다. 안데스 고원지대에서 밤새 차를 달려 온 후 눈을 뜨고 나니 아마존의 밀림에 도착한 것이다. 필자가 수년 전 아마존 지역에서 4개월 정도 현지 조사차 생활 했던 때와 비슷한 ‘것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팀을 반겼다. 즉 고온 다습한, 그 열대우림! 그리고 다른 만남도 있었다. 키토의 Accion Ecologica라는

NGO 환경보호 단체 소속의 소개로 꼬까 (Coc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인 디오첼로씨가 우리를 반가이 맞이해 준 것이다.

우리가 이동한 곳이 아래의 사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나포강을 배경으로 찍은 장면이다. 나포강은 남미, 아니 전 세계의 역사상에 ‘거대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즉 황금 (El Dorado)과 계피의 발견을 위해 동진을 준비하던 프린시스코 피사로와 그의 사촌동생인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가 그 첫 발을 내딛은 곳이 나포강이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가 그리스의 전설에 나오는 가슴 없는 여전사 [‘아마존’ = “아” (없다)+ “마존” (가슴)]와 조우하며 일전一戰을 한 후 대서양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로 귀국 한 후 이 지역을 추후 아마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 1, 2: 에콰도르 아마존 나포강

이 역사적인 장소에 사진 ‘찰칵’ 한 후, 우리팀은 나포강을 따라 야수니 지역으로 이동했다.

아마존 현 실태, 야수니지역 국립공원을 통해 확인하다

디오첼로라는 환경운동가의 소개로 꼬까 (Coca)지역내 원주민 권익 보호 단체 Alejandro Labaka를 방문했다. 그리고 야수니 공원지역은 키추아 (Kichwa), 와오라니 (Waorani) 그리고 슈아르 (Shuar)등의 부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지내는 곳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감사하게! 와오라니부족의 한 가장인 솔로몬의 초청으로 야수니 국립공원 지역내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마을로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사진 3, 4: 녹슨 송유관 과 유조차량

우리는 이동하는 가운데 아마존 야수니 국립공원 지역인근의 실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상기 그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파이프 관들이 즐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를 위함인지 도로망이 제법 잘 포장되어 있었다. 파이프 관들은 원유 채굴 후 가스를 태우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녹슨 파이프 관을 통해 한 곳으로 집결해서 태우기 위해 또한 원유를 한 곳으로 집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아래 사진은 원유를 분리하며 추출하는 과정 가운데 추출 시 발행하는 가스를 태우기 위해 불길기 숲 사이로 높이 솟아올랐고, 원유와 함께 추출된 오염된 물은 저수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진5: 원유와 함께 추출된 각종 폐수를 담아놓은 저수지

사진6: 인근지역의 소떼와 가옥

놀라운 것은 이런 원유채굴 현장과의 지근거리에 소떼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으며 그리고 또 근교에 현지 원주민들의 가옥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원주민 가정들이 비위생적이며 반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에콰도르 정부는 신헌법을 통해 파차마마 (mother of the Earth)로 자연을 중시하고, 또한 좋은 삶 (buen vivir)인 수막카우사이 (Sumak Kawsay)를 내세우며 인간과 자연과의 통합과 조화로운 관계를 전면으로 표방했다. 하지만 상기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그 이면에는 중국발 자본주의 미명아래 에콰도르 좌파 정부가 편승한 모습이다.

이러한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의 현실을 대면하며 먹먹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움막으로 몸을 옮기며 그네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코까(Coca)시내에서 구입한 음식물 및 식자재 등으로 양손을 무겁게 해서 전달을 했다.



사진7: 와오라니 부족의 한 가족과 움막앞에서

하지만 와오라니 부족, 솔로몬 가족의 환대 가운데 자본의 ‘냄새’가 풍겼다. 춤과 노래 등 그네들의 전통공연 후 공예품을 가지고와서 구입을 원하는 그네들의 손에 머쓱함도 있었지만 이내 본인의 마음 한 켠에는 씩씩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

그래도 원주민 움막에서 무사히(?) 벌레들의 ‘공격’을 피하고 다시금 꼬까(Coca)지역으로 나오며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내 개발을 위해 지역을 구분한 푯말 (bloque)을 보며 누구를 위해 태고의 땅인 아마존

지역을 이렇게 구분 짓고 분류하며 개발을 하는 지
문고 또 물었다.



사진8: 와오라니 부족 가운데 방문한 가족이
거주하던 Bloque 14지구의 안내 표지판

이제는 조금 ‘더’ 관광객 모드로 우리팀은 야수니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가 그래도 여전히 멋지고 또 귀한
대 자연과의 조우를 했다. 그 거대한 자연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진9: 야수니 국립공원

우리는 각자 그리 속으로 기도했으리라, 이 자연이
우리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보전되기를...우리들은 한
세대로 현재를 살아가며 곧 다가올 미래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현재가 되겠지만, 이 자연은 처음부터 뿌리
내린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사진10: 야수니 국립공원 나포강의 노을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국가별 연구동향 (2017.4-6)

국가명: 미국

1) 기관명:

Teresa Lozano Long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라틴아메리카 연구센터)

웹사이트 : <http://liberalarts.utexas.edu/llilas/>

일시: 2017년 4월 5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The Judaification of Catholic Culture in the Global Spanish Monarchy (세계 스페인 군주제 내 카톨릭 문화의 유대화)

일시: 2017년 4월 6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Can Latin Americans Be Imperialists, Too?
(라틴아메리카도 제국주의국가가 될 수 있는가?)

일시: 2017년 4월 7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The Uses of Jewishness in Late-Colonial Cuba
(후기 식민지 쿠바 속 유태인 이용)

일시: 2017년 4월 19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Faculty Book Presentation: "Theorizing Race in the Americas"
(교과발표: 아메리카 국가 내 인종 이론화)

일시: 2017년 4월 27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When Walls Become Bridges: Trade and Migration Along the Texas – Mexico Border”
(벽이 다리가 될 때: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한 교역과 이민)

일시: 2017년 4월 28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The Teotihuacan–Maya Encounter: Cultural Implications of the Early Classic Conquest of Tikal"
(마야 테오티 우아칸과의 대면: 티칼 초기 고전 정복의 문화적 영향)

일시: 2017년 5월 10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Brazil Center Lecture: "Cultural Memory and Identity Narratives in the Lusophone Blogosphere" (브라질 센터 학문: 문화적 기억 및 Lusophone Blogosphere의 정체성 서술)

일시: 2017년 5월 10일 / 행사종류: 패널토론

"Challenges for Central American Refugees in the U.S. and Mexico" (미국과 멕시코 내 중앙아메리카 난민의 도전과제)



국가명: 스페인

1) 기관명: 알칼라 대학교(UAH)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웹사이트: www.ielat.es

일시 : 2017년 4월 19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REPUTACIÓN EN POLÍTICA: ¿QUÉ ELEMENTOS IMPORTAN?. RETRATANDO AL CONSUMIDOR POLÍTICO LATINOAMERICANO. Por el Prof. Marco Barboza.

(정치에서의 평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소비자들을(국민) 묘사하다.)

일시 : 2017년 4월 26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V Congreso Iberoamericano y Europeo de Derecho del Trabajo y de la Seguridad Social “Las migraciones y su transversalidad” (이베로아메리카와 유럽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이민과 이동))

일시 : 2017년 5월 19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SEMINARIO MIGRACIONES Y DESARROLLO EN LAS RELACIONES UNIÓN EUROPEA Y AMÉRICA LATINA (2017) (유럽연합과 라틴 아메리카의 관계 발전 및 이민에 관한 세미나)

일시: 2017년 6월 28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Indígenas, derechos territoriales, conflictos y Estado en el México del siglo XIX" (19세기 멕시코의 원주민들의 영토권, 분쟁 그리고 상황)

국가명: 칠레

1) 기관명: 칠레대학교

웹사이트: www.uchile.cl/agenda/

일시 : 2017년 6월 23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Presentación del informe "Momento decisivo: La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중요한 순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The poster is for a presentation titled "Momento decisivo: La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t is organized by the Faculty of Economics and Business of the University of Chile and the World Bank. The event will take place on Friday, June 23, at 11:45 hrs. in the PwC Auditorium at the University of Chile (Diagonal Paraguay 205). The poster includes a program of events: 11:45 hrs. Accreditation, 12:00 hrs. Welcome by Mamiel Agosin, Dean of FEN, 12:05 hrs. Presentation of the report by Maria Marta Ferreyra, Senior Economist at the World Bank, 12:35 hrs. Comments by Pablo González, Director Academic Center of Systems Publics and Investigator principal del Centro de Investigación para la Educación Inclusiva, Departamento de Ingeniería Industrial, Facultad de Ciencias Físicas y Matemáticas U. de Chile, and 12:50 hrs. Questions from the public. The poster also features logos of AACSB, AMBA, and EQUIS accreditation.

Presentación Informe:
"MOMENTO DECISIVO: LA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La Facultad de Economía y Negocios de la Universidad de Chile y el Banco Mundial tiene el agrado de invitarlo a participar de la presentación del Informe "Momento decisivo: La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sta actividad se llevará a cabo el **viernes 23 de junio** a las **11:45 hrs.**, en el **auditorio PwC** de la Facultad de Economía y Negocios, Universidad de Chile (Diagonal Paraguay 205).

Programa

- 11:45 hrs. Acreditación
- 12:00 hrs. Palabras de bienvenida, Mamiel Agosin, Decano FEN
- 12:05 hrs. Presentación del Informe "Momento decisivo: La Educación Superior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de Maria Marta Ferreyra, economista senior en la Oficina del Economista en Jefe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del Banco Mundial.
- 12:35 hrs. Comentarios de Pablo González, Director Académico Centro de Sistemas Públicos e Investigador principal del Centro de Investigación para la Educación Inclusiva, Departamento de Ingeniería Industrial, Facultad de Ciencias Físicas y Matemáticas U. de Chile.
- 12:50 hrs. Preguntas del público

VIERNES 23 JUNIO 11:45 hrs. AUDITORIO PWC DIAGONAL PARAGUAY 205

DESGRO Y DESGRO
OFICINA DE COOPERACIÓN Y RSE

AACSB AMBA EQUIS

일시: 2017년 6월 14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El Salvador-Chile: Los procesos sociales en la construcción y consolidación de la democracia" (엘살바도르와 칠레의 민주주의의 설립과 강화 과정에 대해서)



일시: 2017년 6월 6일 / 행사종류: 콘서트

"Jóvenes intérpretes presentan música española del siglo XX (젊은 연주자들이 20세기의 스페인 노래를 소개하다)

일시: 2017년 6월 9일 / 행사종류: 학술행사

Clase abierta “Reforma Educativa Boliviana: ¿Resistencia a la Reforma Neoliberal en Latinoamérica?” (볼리비아의 교육개혁,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일시: 2017년 5월 29일 ~ 5월 31일

행사종류: 학술행사

Congreso: "A 500 años de la Reforma Protestante. Trayectoria y perspectivas (500년간의 기독교 개혁. 궤도와 전망)



CONGRESO

A 500 AÑOS DE LA REFORMA PROTESTANTE

Trayectoria y perspectivas

EXPOSITORES INTERNACIONALES

Thomas Albert Howard (Valparaiso University, Indiana)
Costica Bradatan (Texas Tech University)
Jason Goroncy (University of Divinity, Australia)

29, 30 y 31 de mayo de 2017
10:00 a 18:00 horas
Sala Ignacio Domeyko
Casa Central
Universidad de Chile

Más información en
www.filosofia.uchile.cl

Actividad patrocinada por el Departamento de Ciencias Históricas y la Facultad de Filosofía y Humanidades de la Universidad de Chile.

Universidades organizadoras:



Colabora:



일시: 2017년 5월 26일~ 6월9일

행사종류: 전시

Exposición “15 años del Archivo de Arquitectura Chilena (ARDACH)” (칠레 건축의 15년간의 자료 전시)

일시 : 2017년 4월3일 오전 9시 30분

행사종류: 학술행사

Seminario "Derribando mitos: La migración en Chile“ (“경계를 허물다. 칠레로의 이민)

FACULTAD DE DERECHO
UNIVERSIDAD DE CHILE

DIALOGOS MIGRANTES

DERRIBANDO MITOS:

LA MIGRACIÓN EN CHILE
El desafío de la construcción de una sociedad intercultural

3 de Abril / 9:30 hrs. / Sala Matilde Brandau
Facultad de Derecho / Universidad de Chile / Av. Santa María 076, 6° Piso / Providencia

COMENTARIO INAUGURAL: Miguel Yaksic SJ, Director del Servicio Jesuita a Migrantes.

IMPACTO DE LA MIGRACIÓN EN LA LEGISLACIÓN

1. Personas en situación migratoria irregular: razones, problemas y soluciones.
Exponer: Rita Lagos, abogada e investigadora del Centro de Derechos Humanos.

2. Migrantes y acceso a la justicia
Exponer: Rodrigo Godoy, abogado de la Oficina de Derecho Humanos, Corporación de Asistencia Judicial.

3. Impacto socioeconómico de la migración, mercado laboral y otorgamiento de visas laborales.
Exponer: Jaime Ruiz Tagle, académico de FEN de la Universidad de Chile y Director del Centro de Microdatos de la misma Facultad.

4. Delitos y migración.
Exponer: Pablo Aranda, jefe de la Unidad de defensa penal juvenil y defensas especializadas de la Defensoría Penal Pública.

ACTIVIDAD GRATUITA / CUPOS LIMITADOS / MAYOR INFORMACIÓN E INSCRIPCIONES: extension@derecho.uchile.cl

ORGANIZAN:



국가명: 영국

1) 기관명 : 옥스퍼드 대학교 라틴아메리칸 센터

웹사이트 : <http://www.lac.ox.ac.uk/>

일시: 2017년 5월 4일

Latin American History Seminar: Regional Disparities in a Pre-industrial Economy: GDP per capita of the Colombian States in 1846 (라틴아메리카 역사 세미나 : 산업화 이전 경제의 지역적 격차 : 1846년 콜롬비아 주의 1인당 GDP)

일시: 2017년 5월 5일

Presentation of CAF Economy and Development Report 2016: More Skills for Work and Life (2016 CAF 경제 및 발전 레포트 발표 : 일과 생활을 위한 더 많은 기술들)

일시 : 2017년 5월 12일

Latin American Centre Seminars: The Cost of Crime and Violence: New Evidence and Insigh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 센터 세미나 : 범죄와 폭력에 대한 대가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의 새로운 증거와 통찰)

일시: 2017년 5월 31일

SPECIAL SEMINAR ON THE VENEZUELAN CRISIS: THE OTHER VENEZUELA: The Current Crisis in Historical Context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특별 세미나 : 또 다른 베네수엘라 : 역사적 맥락 속에서 최근의 위기)



일시: 2017년 6월 8일

Latin American History Seminar: Cultural Pan-Americanism and Negotiated Hegemony in Early Twentieth-Century Inter-American Relations (라틴아메리카 역사 세미나 : 범미주의 문화와 20세기 초 미대륙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절충된 헤게모니)



일시: 2017년 6월 1일

Latin American History Seminar: The Height, Depth and Width of the Left in Latin America: A Historical Perspective (라틴아메리카 역사 세미나 : 높고 깊고 넓은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 그 역사적 관점)

국가명: 멕시코

1) 기관명 : Centro de Investigaciones sobre America Latina y el Caribe(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구센터)
웹사이트 : <http://www.cialc.unam.mx/>

일시: 2017년 5월 3일 / 행사종류: 컨퍼런스
Fidel Castro. El poder de las imágenes (피델 카스트로. 사진이 가지는 힘)



일시: 2017년 5월 12일 / 행사종류: 콜로키움

Intelectuales y exilio iberoamericano (중남미의 지식인들과 망명자들)



일시: 2017년 5월 26일 / 행사종류: 컨퍼런스

El Islam en América Latina (라틴아메리카 내의 이슬람교)

일시: 2017년 5월 31일 / 행사종류: 세미나

Crisis hegemónica y su impactgo en el regionalismo de las américas (헤게모니적 위기와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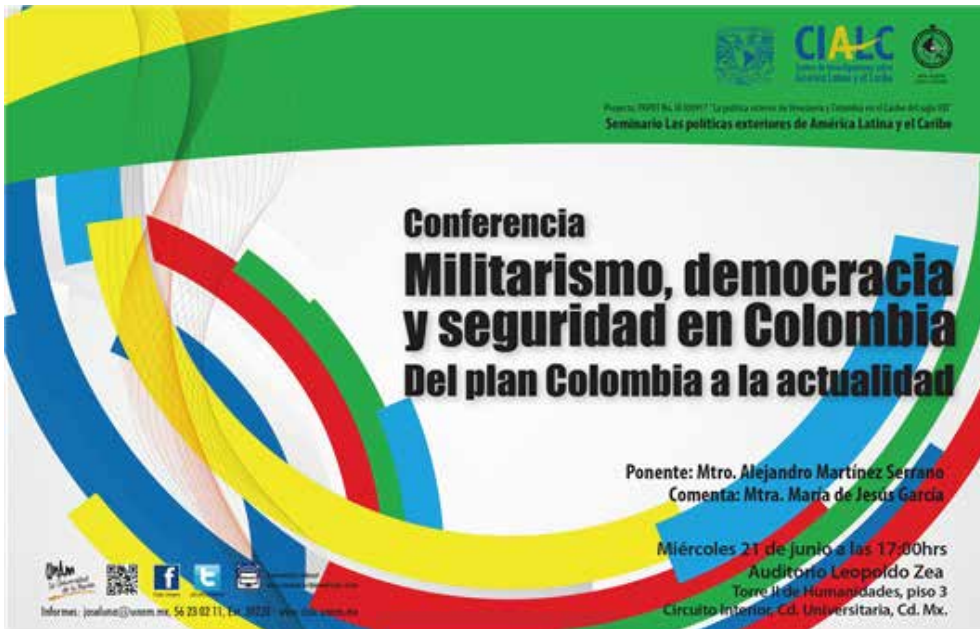
일시: 2017년 6월 8일 / 행사종류: 컨퍼런스

Poesía y exilio quechua contemporáneo (깨추아어
현대시와 유형)



일시: 2017년 6월 21일 / 행사종류: 컨퍼런스

Militarismo, democracia y seguridad en Colombia
(콜롬비아의 군사주의, 민주주의와 안전)



국가명: 브라질

1) 기관명: Instituto de Estudos Avançados da Universidade de São Paulo(상파울루 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 웹사이트 : <http://www.iea.usp.br/>

일시: 2017년 5월 4일

Governo Trump e as Repercussões nas Interfaces Ambiente, Saúde Global e Sustentabilidade (트럼프정부와 환경 인터페이스, 글로벌 건강 그리고 지속가능성에서의 반향)

일시: 2017년 5월 12일

Há uma Recessão Democrática no Mundo? (세계 민주주의의 침체)

일시: 2017년 5월 24일

Um Conceito de Imprensa para os Cursos de Jornalismo (저널리즘 과정을 위한 인쇄물의 개념)

일시: 2017년 6월 1일

Dinâmicas e Interações Amazônicas: Sociedade, Ambiente e Políticas Públicas (아마존 지역의 원동력과 상호작용: 사회, 환경 그리고 공공정치)

일시: 2017년 6월 21일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flammatory Diseases - Inflamma III (제 3회 국제 심포지움: 염증성 질환에 관하여)

일시: 2017년 6월 27일

Relançamento do Site Qualidade da Democracia (민주주의 현장의 퀄리티 개선)

2) 기관명: Fundação Alexandre de Gusmão
(알렉산드리 지 구스마웅 재단)

웹사이트 : <http://funag.gov.br/>

-일시: 2017년 4월 27일

-주제: O Brasil, o BRICS e a Agenda Internacional
(브라질, BRICS 그리고 국제적 의제)



일시: 2017년 6월 14일

cooperação em diplomacia e defesa na Europa e na
América do Sul (유럽과 남미에서의 외교 및 국방 협력)

일시: 2017년 6월 27일

Novos olhares sobre a política externa brasileira
(브라질 대외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

3)기관명: 브라질리아 대학교(Instituto de Relações
Internacionais)

<https://irel.unb.br>

일시: 2017년 5월 10일

A Nova Lei de Migração no Brasil (브라질 새 이주
법안)

일시: 2017년 5월 8~9일

Seminário Internacional Culturas, espaços e sa-
beres: experiências do Sul (국제 문화, 공간 그리고
지식세미나: 남쪽의 경험들)

중남미지역원 소식

1. 제 31차 중남미지역원 콜로키엄

일시: 2017년 4월 17일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본관 (F207호)

피치버그 대학 스페인어문학과 교수이며 Revista Iberoamericana의 발행인이며 편집자 대표인 Dr. Juan ramón Duchesne가 "Del Caribe al Amazonas, escrituras y cosmografías" (카리브해와 아마존의 신화와 창조론)이라는 주제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학세계를 소개했다. 국내에서 아마존 원주민들의 사상과 문학과 연구 경향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2.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서울대 라틴 아메리카연구소 공동주최 2017 국제학술대회

일시 : 2017년 4월 21(금) / 22(토)

장소 : 부산외대 본관 410호/510호/516호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공동주최 국제대회의 아젠다는 ‘라틴아메리카적
세계화의 함의와 전망’이다.

제 1분과: 라틴아메리카적 세계화와 함의

제 2분과: La comunicación intercultural

제 3분과: 라틴아메리카 소수자 역사

제 4분과: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적 변화 #1

제 5분과: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적 변화#1

제 6분과: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적 변화#2

제 7분과: 라운드 테이블: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 EBS '세계테마기행' 알티플라노 고원기행 방송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교수 이태혁(큐레이터 출연))

일시: 2017년 5월 15일~18일

장소: 페루, 볼리비아, 칠레를 아우르는 알티플라노 고원

페루, 볼리비아, 칠레에 걸쳐 장장 1,000km에 이르는 남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티플라노 고원을 따라 해발 4000미터에 이르는 고지대에서 만난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소개했다.



4. 제 38차 중남미지역원 월례세미나

일시: 2017년 5월 31일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제1발표: 정 이 나 (HK연구교수)

제3세계 토지개혁으로 살펴 본 미국 대외정책 성격 연구

제2발표: 이 태 혁 (HK연구교수)

What doe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mean for Latin America?



연구주제 요약 : 3 단계 3 년 차
정치경제분과의 “아젠다는 초국가와
지역 라틴아메리카 대외정책”이다.
이 에 정 이 나 연 구 교 수 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토지개혁과 미국의 대외정책의

관계를 밝히며 이태혁 연구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각 국가의 반응을 발표했다.

5. 제 39차 중남미지역원 월례세미나

일시: 2017년 6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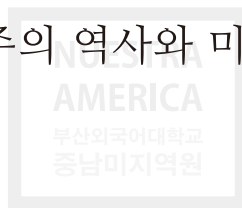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제1발표: 서 성 철 (HK연구교수)

라틴아메리카와 필리핀: 마닐라 갠리언 무역을 통해서

제2발표: 차 경 미 (HK연구교수)

라틴아메리카 통합주의 역사와 미래: 접경지역 원주민
통합의 한계



연구주제요약: 3단계 3년차 마지막
월례세미나는 역사분과이다.
세계최초 전 지구적 교역인 갠리언
무역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특히 필리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서성철 교수가 발표하고 라틴아메리카
통합주의 역사와 미래라는 대 주제를 접경지역 원주민
통합의 관점에서 차경미 교수가 발표했다.